

광주시, 10일간의 평온한 추석연휴

사상 최장인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평온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추석연휴 기간 광주송정역, 광천터미널, 공항을 이용해 40만여 명이 광주를 방문했으며, 개인차량은 275만대가 유입되고 270만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만여 명의 성묘객이 시립묘지(망월묘지, 영락공원)를 찾은 가운데 10월4일 추석 당일에는 5만5000여 명의 성묘객이 몰리기도 했다. 광주지인비엔날레는 연휴기간 4만9000여 명이 관람해 호평 속에 성공 기대감을 높였다. 또 프린지페스티벌, 민속박물관, 옛 전남도청 사진전 등도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연휴기간 성묘·의료,

개인차량 275만대 유입·270만대 유출 영락공원 등 시립묘지에 13만여명 성묘

교통, 청소, 재난·소방, 급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561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돌봄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89개소를 위문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구 259세대에 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520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및 대체 식품 상품권을 제공했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31대 270회 증회 운영을 통해 성묘객들의 교통편의를 도왔으며, 추석명절 기간 매일 경찰, 공무원, 모범운전자회원 95명씩을 배치해 차량소통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365생활민원실과 각 대책반에서는 제증명을 포함해 생활민원 총 90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120빛고을콜센터에서는 총 129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한편 광주시 공무원들은 26개소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62개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윤장현 시장은 연휴 전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광주송정역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편의시설을 점검한데 이어 명절 기간인 10월 4일에는 버스차고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립민속박물관을 찾아 근무자와 거주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7일에는 2017 무등올림 개막식과 프린지페스티벌 현장을 방문, 시민들이 연휴를 보내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립대, 호남권 최초 대학일자리센터 유치해

전남도립대학교는 호남권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역 우수 대학을 선발해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거버넌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도입대를 포함해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전남도립대는 앞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인근 전북지역까지 취업지원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3년 2월까지 5년간 총 10억 원의 운영 사업비를 지원받아 산업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한다. 전문 컨설턴트 3~4명이 학생 진로상담을 하고 진로지도 필수 교과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김대중 총장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에 분산된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 연계해 학생들에게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취업이 잘 되는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해 대학평가 우수대학 5관왕을 차지한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다.

전국 최저 등록금인 인문계 86만원, 이공계 99만원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했고,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전액 장학혜택을 주는 등 학생복지도 최고 수준이다.

김정환 기자



장휘국 교육감, 교직원들에 업무 충실 당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중 월례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장 교육감은 긴 연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한 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의혹' 책임자 처벌 촉구

"국정원, 특정 세력위해 정치공작 나섰다"는 것 분노

광주시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악으로 국가의 안명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국정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것에 전 국민은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려 했던 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존을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이며 전쟁을 통해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앞잡이이고, 국격마저 포기한 파렴치한 정치세력일 뿐 아니라 열등감에 빠진 무능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 누

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치공작을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은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돼 그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힌 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적폐 청산 구약 체결은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이므로 과거 정치 공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동구, 현장 출동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광주 동구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평생학습회 기간 동안 '현장출동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3기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차기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전문 정비팀이 참여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소모품 교체 ▲자동차 기관 전기, 세시 등 관리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12일까지 동구청 인문경년과(☎08-2324)로 신청하면 된다.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구, 경로당 전통 민속놀이대회 개최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서구 내 모든 경로당이 참여하는 전통 민속놀이대회를 개최한다.

경로당의 여가문화 선도를 통해 문화와樂이 있는 활기찬 경로당을 육성하기 위한 것.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웃음이 고리던지기, 후호놀이, 환궁놀이 등 4개 종목으로 명석을 깔고 밤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전통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서구 내 18개 동 경로당 별 예선전을 거쳐 4개 종목별 대표 경로당이 한자리에 모여 본선대회를 치르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남구, 제7회 굿모닝 양림 13~15일 팡파르

광주의 근대화유산과 다양한 역사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문학 축제인 제7회 굿모닝 양림이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양림동 및 사직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제7회 굿모닝 양림 축제의 주제는 '버들피리 소리 들려오는 가을 이야기'이다.

굿모닝 양림 축제를 통해 가을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참여 체험부대, 특별부대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시 분야의 행사는 축제 시작 이전인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양림동을 무대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과 양림동의 역사, 풍경 등을 바탕으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북구, 북동에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 동산 조성

광주 북구는 북동 일대에 '하얀나비' 이름 모를 소나무의 가수 고 김정호 동산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정호 동산에는 3m 크기의 화강암 벤치,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실물 크기의 청동 동상, 음표를 형상화한 '하얀나비' 조형물이 설치된다.

주변에는 조경수와 태양광 조명 시스템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한편 바닥에는 '하얀나비' 노래의 가사를 새겨 넣을 계획이다.

한편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삼각동 가짜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까지 총 5회에 걸쳐 김정호 노래 부르기, 풍기타 연주 등 김정호를 추억하는 작은 추모음악회를 이어간다.

광산구, 차세대 예술가 육성 나선다

광주 광산구가 공모한 '럭키소춘 차세대 작가 레지던스' 결과를 9월 26일 발표했다. 광산구는 심사를 거쳐 김미현, 손만석, 박기태, 신주옥, 이건용 작가를 소춘아트팩토리 입주 작가로 최종 선정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다섯 작가를 두고 평단은 '미래 유망주'라고 평가한다.

김미현(소울파종드 대표), 이건용(조선대 미술학과 박사과정) 작가는 설치 예술, 손만석(조선대 문화애니메이션학과 졸업), 신주옥(중앙대 의류학과 졸업) 작가는 다원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조소 분야는 박기태(전남대 미술학과 박사과정) 작가다.

이들은 앞으로 소춘아트팩토리에 있는 소춘큐브미술관에 상주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자가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건 번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7년 190 상속판정승인
사 망 자: 이학열(401001-163324)
희후주소: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56-3(동교리)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56-3

위망 이학열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관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 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11일

공고인: 이윤재, 임혜숙, 이영민, 이영서, 이미경, 이경아, 이애경.
주 소: 전남 순천시 조계동 5, 20동 156호(주례동, 동신2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7년 9월 27일
공고기간: 2017. 10. 11~2017. 12. 12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 업 인 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류
동센터 30동 217호(중앙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